

류현진, 손흥민, 고진영... '코리언 스타들' 코리아를 빛내다

2019 스포츠 10대 뉴스

연합뉴스가 광주매일신문 등 전국 54개 신문·방송사 스포츠 기사를 대상으로 '2019년 스포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연합뉴스는 1위 표 10점, 2위 표 9점, 3위 표 8점 순으로 10위 표까지 순위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각 항목의 총점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리했다. 2019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를 주요 사진과 함께 게재한다.

1 류현진, 야선수 최초 평균자책점 1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은 2019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도전을 새로 썼다.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을 수없이 생산하며 최고의 투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을 맡으며 실질적인 팀 에이스로 시즌을 시작한 류현진은 5월 6경기에서 5승 평균자책점 0.59의 성적으로 한국 선수로는 1998년 박찬호(당시 다저스) 이후 21년 만에 이달의 투수상을 거머쥐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선 한국인 투수로는 최후이자 아시아인 투수로는 1995년 노모 히데오(당시 다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별들의 무대'의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마운드를 밟았다. 그는 정규시즌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한국 투수 최다 연속(7연승) 타이 기록, 한국인 최다 연속 무실점(32이닝) 2위 기록을 세우는 등 맹활약했다. 지난달엔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발표에서 1위표 1장, 2위표 10장 등 88표를 얻어 제이컵 디그를(뉴욕 메츠)에 이어 단독 2위 자리에 올랐다.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를 받은 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이다.

2 손흥민, 유럽축구 한국인 최다 골 경신



2019년은 유럽 축구 무대에서 손흥민(27·토트넘)이 축구 인생의 '카리어 하이'를 찍은 한 해로 기억될 만하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66)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보유했던 기존 한국인 유럽프로축구 역대 최다 골(121골) 기록을 훌쩍 넘어 126호 골까지 따내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득점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퍼포먼스'에서도 전 세계 팬들의 탄성을 자아낼 역사적인 장면도 연출했다. 손흥민이 12월8일 열린 번리와 2019-2020 정규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던 전반 32분 터트린 득점은 '올해의 골'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손흥민은 자기 진영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볼을 잡은 뒤 '폭풍 질주'로 수비수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뒤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슛으로 골맛을 봤다. 손흥민이 질주한 거리만 70m를 훌쩍 넘는 '원더골'이었다. 이런 활약을 앞세워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는 '발롱도르' 후보 30명에 이름을 올렸고, 투표결과 전체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3 정정용호, FIFA U-20 월드컵 준우승

정정용 감독이 지휘한 한국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 대표팀은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FIFA 주관 대회를 통



'평화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PEACE)

세계 5대 스포츠대회 가운데 하나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빛고을에서 펼쳐졌다. 사진은 지난 7월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 문화행사 모습. /광주매일신문 DB

틀어 한국 남자축구 사상 최고 성적이다.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와 이른바 '죽음의 조'에 속한 대표팀은 2승 1패를 거두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며다 속적 일본을 1-0으로 꺾고 한발짝 더 나아갔다. 8강에서 만난 세네갈과는 연장 혈투에서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기는 명승부를 연출하고 '멕시코 4강 신화'를 36년 만에 재현했다. 정정용호는 4강에서 에콰도르마저 1-0으로 돌려 세우고 처음으로 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2골 4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로 대회 최우수선수상 격인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4 체육계 '미투' 파문...적결 요구 분출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한국 체육계는 충격과 개탄으로 2019년을 시작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심석희를 가르쳤던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여서 충격이 컸다. 조 전 코치는 이미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어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도부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폭행 등 인권 문제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쉬쉬하며 감추기에 급급했던 체육계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뒤늦게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합숙 훈련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5 호날두, K리그팀과 친선전 '노쇼' 논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올해 여름 열린 소속팀 유벤투스(이탈리아)와 한국 K리그 선발팀의 친선경기에서 '노쇼' 해 축구팬의 공분을 샀다. 호날두는 경기 전 예정됐던 팬 미팅과 사인회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무더위 속에 경기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됐지만 6만5천여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호날두의 플레이를 감상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후반전이 벌어지는 45분 내내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있었다. 기대감으로 시작해 분노로 끝난 호날두 향한 친선경기는 민사 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팬들은 티켓값과 위자료 등을 경기 주최사인 디페스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경찰은 디페스타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6 LPGA 투어 한국 선수 역대 최다 15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2019년에도 '홀수 해 맹활약' 행진을 이어갔다. LPGA 투어 '코리안 시스터스'는 2019년 LPGA 투어 32개 대회의 절반에 가까운 15승을 합작했다. 올해는 또 LPGA 투어 2년 차인 고진영(24)이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 5개 메이저 대회 가운데 2개(ANA 인스퍼레이션, 에비앙 챔피언십)를 휩쓰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고진영은 한국 선수 최초로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LPGA 투어 주요 개인 기록 부문 1위를 석권했다. 이정은(23)은 신인상을 수상, 한국 선수의 5년 연속 LPGA 투어 신인왕 행진을 이어갔다. 또 김세영은 시즌 최종전으로 열린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 여자 골프 사상 최다 우승 상금인 150만달러(약 17억6천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7 두산, 역대급 뒤집기로 통합 우승

2019년 한국프로야구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모두 두산 베어스였다. 정규시즌 최종일에 극적인 역전승으로 1위를 확정된 두산은 한국시리즈에서도 매 경기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8월15일까지 SK 와이번스에 9경기 차나 뒤졌던 두산은 무서운 기세로 추격했고,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 우승'을 확정했다. 5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 한 순간이기도 했다. 두산은 2019년 두 번째 우승 트로피도 들었다.

두산은 키움 히어로즈와의 한국시리즈를 4경기 만에 끝내고, 2016년 이후 3년 만에 통합우승을 완성했다.

8 평양 南北 축구 '無중계·無관중' 논란

10월 평양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은 세계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경기'로 화제를 낳았다. 홈 팀인 북한이 한국 선수·스타프 등 선수단의 입국만 허용하고 취재진과 응원단은 불허하면서 준비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북한은 거듭된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방송 생중계도 무산됐다. 여기에 북한은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 김일성경기장에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관중을 들이지 않아 초유의 '무중계·무관중' 경기를 만들었다. 애초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이메일로 기본적인 현장 정보를 국내로 전할 예정이었으나 인터넷 연결 상황이 열악해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AFC는 11월 평양에서 열려던 클럽 대항전인 AFC컵 결승전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바꿔 사실상 북한에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

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201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가 7월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와 여수 일원에서 열렸다. 이어 8월 5일부터 18일까지는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가 같은 곳에서 개최됐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94개국 2천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1년여 앞두고 열리는 메이저대회라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광주를 찾았다. 다이빙에서는 한국 수영 역사가 새롭게 쓰였다. 김수지가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다이빙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가 됐다.

10 전북, K리그 역대 최다 7회 우승 타이

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2019시즌 K리그1 3연패 달성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7회) 타이 기록을 쓰며 역대 최강의 팀으로 우뚝 섰다. 마지막 38라운드 전 선두 자리는 울산 현대가 차지하고 있었고, 전북은 승점 3점 뒤진 2위에 있었다. 울산은 포항과의 최종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지만, 승리의 여신은 전북을 향해 미소지었다. 울산은 무기력한 경기 끝에 포항에 1대4로 무너졌고, 전북은 강원을 1대0으로 제압했다. 전북과 울산의 승점은 79점으로 같아졌다. 다득점에서 1점 앞선 전북(72득점)은 울산(71득점)을 제치고 역전 우승을 이뤄냈다. /연합뉴스